

“Conceptual metaphors and political language use in Korean: A case study of the Sunshine policy and of its discourse”에 대한 토론문

나익주¹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1*}

ikjoona@chonnam.ac.kr^{1*}

이 연구는 개념적 은유나 개념적 틀과 같은 인지 기제가 일상의 의사소통은 물론 정책 결정자의 의사결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지언어학자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8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이라 불리는 대북 정책과 관련 담화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해 햇볕정책의 동기가 이솨 우화 ‘해와 바람’에 있으며 이 우화의 서사 구조가 이 정책에 대한 중요한 함축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햇볕정책의 은유적 대응과 함께, 이 정책의 추론과 함의에 [국가는 개인], [아는 것은 보는 것], [다정함은 따스함], [원인은 힘]의 네 은유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대북 정책에 대한 이 명명에 ‘개념적 수행성’이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개념적 수행성’을 ‘정신 공간 혼성’의 사례로 정의하는 Sweetser(2002)를 수용하여 햇볕정책의 이 수행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국제 관계에서 개념적 은유가 수행하는 역할만을 조명한 기존의 연구(Lakoff 1991; Mio 1997; Pancake 1993; Roher 1991)와 달리, 이 연구는 개념적 은유와 수행성을 결합해서 국제 관계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이며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지평을 넓혀 줄 것이라 기대한다.

대북 정책을 ‘폭풍 정책’이 아니라 ‘햇볕정책’이라 명명한 의도가 바로 이 수행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저자의 통찰이 특히 인상적이다. 우화 ‘해와 바람’에서 ‘바람’은 순간적으로 그 강도를 점점 높여 ‘여행자’의 ‘겉옷’을 벗기려 시도하나 실패하는 반면, 이 우화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로서 따스한 햇볕의 시원인 ‘해’는 ‘여행자’로 하여금 ‘겉옷’을 스스로 벗게 하여 승자가 된다. ‘햇볕정책’은 바로 이 서사 구조를 (‘바람’에 대응하는) 남한의 군사적 봉쇄나 경제적 제재가 아니라 (‘햇볕’에 대응하는) 경제적/인도적 지원이 (‘여행자’에 대응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외투’에 대응하는) ‘고립주의 정책’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국제관계(남북관계)’의 내부 구조에 투사한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입안자들이 우화 ‘해와 바람’의 서사 구조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 자신들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대북 관계를 실현하고 싶은 기대를 반영한 명명이다. 우화 영역 내 서사의 인과 구조는 결과 상태(실재)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는 반면, 한반도 남북 관계 영역 내 인과 구조는 바람직한 정치적 시나리오 속의 결과 상태(비실재)에 대한 기대에 근거한다. 동화 서사(근원 영역)의 인과성과 한반도 남북 관계(목표 영역) 내 인과성 사이에서 드러나는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이 개념적 수행성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참신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다.

전체적으로 저자의 통찰과 분석이 매우 정교하여 이 연구를 다듬든 데 도움이 될 만한 건설적인 제안이나 논평을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토론자의 오해와 이해 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는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질문

1. '햇볕정책'은 개념적 은유의 비언어적 발현인가요? 일반적으로 모든 정책은 입안과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개념적 은유의 비언어적 발현으로 볼 수 있는가요? 아니면 두 양상을 다 지니고 있는지요?

2. Figure 1. The Metaphorical Mappings Involved in the Sunshine Policy에 맨 위에 source(근원 영역)와 target(목표 영역)이라고만 제시하고 있는데,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논문 전체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대북 정책은 우화 속 서사](POLICY TOWARD NK IS A NARRATIVE, IN A FABLE)일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더 일반적으로 상위적인 은유 [정책은 서사](A POLICY IS A NARRATIVE)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더 구체적인 수준의 은유 [국제관계 시나리오는 동화 서사](A SCENARIO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A NARRATIVE IN A FABLE)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3. [국가는 개인], [아는 것은 보는 것], [다정함은 따스함], [원인은 힘] 은유 이외에, '햇볕정책'의 추론과 함의에 작용하고 있는 개념적 은유는 없는지요? 담화 자료 (4)는 '한반도 평화'라는 더 커다란 대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여행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은유적 사고의 발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제관계는 여행] 은유도 '햇볕정책'에 깔려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당연히 모든 정책에 깔려 있는 사건 구조 은유의 당연한 귀결일까요?

4. 우화 '해와 바람'에서 '해'는 당연히 '뜨거운 열'이 아니라 '따스한 햇볕'만을 내보내고, '바람'도 강도를 점점 높이지만 나그네가 자신의 외투를 붙잡고 있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마저도 '나그네'를 죽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의도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예방적 선제 타격'이나 '외과수술적 타격'이란 용어로 대북 군사 조치를 주창하던 강경론자들은 나그네(북한)의 죽음이나 중상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회가 '바람'이 나그네가 죽든 말든 '초강력 태풍'을 날려 옷을 벗겨 승자가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우화에서 자신들의 정책 동기를 따온다면 강경론자들은 '바람의 방식(Wind's way)'을 따라 명명할까요? 또한 무더운 여름날에 '바람'이 산들바람을 내보내자 '나그네'가 산들바람을 맞으려고 외투를 벗고, '해'가 이글거리는 햇볕을 강하게 내보내자 '나그네'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 외투를 벗기지 못한다면, 유헌론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바람의 방식(Wind's way)'을 따라 명명할까요?

참고 문헌

- Lakoff, George. 1991. Metaphor and War: The Metaphor System Used to Justify War in the Gulf. *Peace Research* 23: 25-32.
- Mio, Jeffery Scott. 1997. Metaphor and Politics.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12(2): 113-133.
- Pancake, Ann S. 1993. Taken by Storm: The Exploitation of Metaphor in the Persian Gulf.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8(4): 281-295.
- Roher, Tim. 1991. To Plow the Sea: Metaphors for Regional Peace in Latin America.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12(2): 163-181.

Sweetser, Eve. 2000. Blended spaces and performativity. *Cognitive Linguistics* 11(3/4): 305-333.